

# “एं터리 용역보고 믿을 수 없다”

## 금화봉 일대 채석장 환경성 검토 보고회서 주민반발 주민들, 용역내용 석산업체 허가 위한 요식행위 주장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금화봉 일대(청수·영중) 채석장 환경성 검토 중간보고회에서 주민대표로 참석한 박낙영 거사리 이장은 채석장 관련 환경성 검토 용역은 요식행위를 빙자해 채석장 허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낙영 이장 등 영중면 주민대표 4명이 서명한 금화봉 일대(청수·영중) 채석장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한 주민대표 의견서에서 “용역중간 보고회의 개최 목적인 채석장에 따른 주변환경 피해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채석장 허가를 위한 행위를 통해 면회부를 주려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박 이장은 또 “용역내용 중 석재 산업 현황에서 석산업체 부양가족 인원수까지 자세히 조사했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석장으로 인한 민원제기 및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마태사에 대한 조사 기록이 전혀 없고 마을 안 길을 통행하는 대형 차량과 출퇴근 차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이장은 “계절별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적임에도 단기간 내에 일시적·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장

철 환경오염 상태와 저기압 때의 소음, 분진 측정 결과도 없을 뿐 아니라 측정 당시 채석업체들의 작업 가동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포천시는 영터리 용역보고를 한 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이장은 아울러 “환경성 검토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회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계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효수 거사리 이장은 “지난 30년 동안 석산업체들은 수백억원의



지난 14일 금화봉 일대 채석장 환경성 검토 중간보고회에 주민대표로 참석한 박낙영 거사리 이장은 용역보고 내용이 석산업체 허가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익을 봤지만 주민들은 각종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석산을 확대개발하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병욱 포천시 의원은 “금화봉 일대 석산과 관련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청수면 주민의견 수렴은 없어 특정 지역에 한정된 환경성 검

토”라고 지적하고 “용역 최종 기간이 8월22일인데, 그때까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용역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을 맡은 대경CNC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 등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 보고서 내용에 첨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우리 동네를 말한다 35

영중면 거사리 이장 박낙영

## 마을 인구증대 위한 인프라 조성

포천시 영중면에는 고모천과 포천천에서 흘러내린 물이 합수되어 북쪽으로 흘러 곡수를 이루는 지점에 큰 바위가 하나 있다.

그 바위의 형상이 백조가 물 위에 서서 사방을 바라보는 모양이라 하여 백조주라고 한다. 영평 8경(현 포천팔경)의 하나로 영평천의 맑은 물과 백로암의 기묘한 형태가 하나의 비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주변의 경치 또한 매우 아름답다.

백조주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곳은 영중면 거사리의 일부이다.

지난 2000년 이장으로 임명돼 마을 일을 돌보고 있는 박낙영(53·사진) 이장으로부터 거사리에 대해 들었다.

거사리는 죽산(朴)씨가 집성촌을 이뤄 오늘날에도 50% 이상의 마을 주민들과 박낙영 이장 역시 죽산 박씨다.

거사리는 43세대 132명이 거주하는 포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마을로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이 발생한 지 3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이장은 “주민대부분이 노인인구로 구성돼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에 힘이 든 것이 사실이다”며 “당장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조성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에 발맞춰 박 이장은 마을의 인프라 확충에 최대 역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이장은 “인근 거사리에는 최근 펜션단지화 전원주택이 들어서 마을 경제활성화와 외부인구 유입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백조주라는 관광지를 배경으로 펜션이나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현재 마을 상수도 및 하수로 정리 등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마을 구성원 중 노인회가 가입된 노인이 35명인데 이 노인들은 마을에 공동체를 이용한 공제회를 통해 수입을 창출해 마을회관 운영비용 및 마을 행사시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점차 노령화되고 신규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거사리는 상수도 시설



박낙영 이장  
영중면 거사리

이 준공돼 25세대의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수도를 설치하게 된 데는 남다른 주민들의 대비책이 었다.

“최근 마을에 외지인이 운영하는 시설채소 하우스로 인해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이 우려돼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다”며 “상수도 시설의 완공은 물 부족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주민들의 취수와 농업용 용수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사리는 올해 안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늘어난 고령화 사회를 대비 주민복지센터 개념의 시설을 구획했다.

박 이장은 “현재의 마을회관에서 1층을 더 늘려 운동기구 등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사리는 매달 1번씩 주민들이 모여 월례회를 개최 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박 이장은 “이장을 맡은 이후 행정적인 부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민과 공유하며 마을일을 추진했다”며 “이렇게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 제공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이장은 최근 일련의 과정인 만세교역환경 건설 및 영중과 청수면에 걸쳐 개발중인 들산의 소음 및 분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문제의 조속한 원인해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불우이웃돕기 운동 誠金 전달식

### 포천초·동남중 학생 10명에게 100만원 전달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관내 포천초등학교(사진 좌)와 동남중학교(사진 우) 학생 10명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게끔 돕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한 애독자 및 시민들의 성금 100만원을 포천초등학교 학생 5명과 동남중학교 5명 등 1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전달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포천초등학교 성금전달식에서 최규필 교장은 “지금은 비록 어려워지만 포천신문사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 남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또 지난 14일 오후 3시 동남중학

교 교장실에서 가진 성금 전달식에서 최재선 교장은 “포천신문사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요긴하게 사용하고 나중에 자라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줄 것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는 성금 전달식에서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맡겨주신 시민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며 “비록 적

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사회에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본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은 031-542-1507로 문의하면 되며 성금을 기탁할 계좌는 농협 585-01-01524(주)한국정보, 포천신문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예술가는 육체노동자... 정신적 가치 인정해야”

### 포천 조각가 故 구분주씨의 법적지위 확보 요구

예술가는 일용직 육체노동자인가. 2003년 포천에서 조각가로 활동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진 조각가 구분주씨의 사고 배상을 두고 유가족과 보험회사가 소송을 벌이면서 예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한 보험사측의 항소 방침에 예술계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최근 2003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 상의 예술전문가 5~9년 경력 인정, 가동 연한 65세 인정’을 골자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일일수익금(생존시 평생 수입)의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고인이 주로 물의 대형상장물을 제작하는 등 육체노동에 종사했으므로 ‘도시일용노동’이 기준이 돼야 하며, 가동연한도 육체노동자에 준하는 60세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족과 미술계는 고인은 숨질 당시 37세의 나이로 국립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20여곳의 작품 소장처, 메이저급 미술관 초대 전 3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였던 전도유망한 작가라며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미술계는 예술가의 정년을 60세로 줄이고 ‘도시일용노동’에 준해 배상하겠다는 것은 조각가인 피해자의 예술경력과 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무직자’로 처리하겠다는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가 구분주 소송 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부터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난 1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원석 작가가 본인의 조각작품과 함께 12시위에 참가했다. 이 작품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초상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꽃샘종합 선물세트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꽃샘벌꿀은 맑은 새벽이슬의 꽃향기를 정성껏 담은 자연 그대로의 고농도 순수한 벌꿀입니다.

**(주)꽃샘종합식품**  
대표이사 :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代) FAX.031)541-9933  
소비자상담실 : 031)541-9922